

## 메시지 2

(자매님들을 위한 공과— 34과)

### 구약에서 여인들의 본과 예 (8) - 한나

성경말씀: 사무엘 상 1:1-2:11

#### I. 사무엘 상 하는 먼저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을 성취하시기 위해서는 사람의 동역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계시한다. 그 첫번째 예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이다.

- A. 사무엘의 출생은 한나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을 필요로 했다: 그녀의 사례는 오늘날 하나님이면 유의 사람을 얻기를 기대하시는가를 보여준다.
1. 낡은 제사장 직분은 진부하고 쇠퇴해 가고 있었으며 하나님은 또 다른 시작을 갖고자 하셨다. 사무엘의 출생을 위하여 하나님은 배후에서 일을 시작 하셨다.
  2. 한편으로 그분은 한나의 태를 닫으셨고 다른 한편으로 그분은 격동시키는 사람을 예비하셨다—삼상 1:5-7.
  3. 이것은 한나로 하여금 주님이 그녀에게 사내아이를 주시도록 기도하게 했다. “오, 만군의 여호와님! 만일 여호와께서 참으로 이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저를 기억하시어 이 여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여종에게 사내아이를 주신다면, 그 아이의 일생을 여호와께 바치며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삼상 1:11.
  4. 이 기도는 한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녀가 기꺼이 그분과 동역하고자 하였으므로 하나님은 한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에 응답하여 그녀의 태를 여셨으며 한나는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삼상 1:20
  5. 그 후 그녀는 서원에 따라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 엘리의 후견 아래 두었다.
  6. 이로부터 우리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과 상당히 동역한 사람이었음을 본다.
- B.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의 성취가 우리의 동역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에 인상받아야 한다. 하나님과 동역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묶이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인삼각 경주를 그 예로 사용할 수 있다.
- C. 오늘날 많은 대륙과 나라들이 주의 회복에 대해 열려 있다. 한나와 같이 서원할 몇몇 사람들이 필요하다. 나는 많은 젊은이들이 그러한 서원을 하기 바란다.
1. “저는 다만 자신을 주님께 빌려드립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2.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실 것이며, 여러분이 그분께 서원한 것을 성취하시기 위해 무언가를 이루실 것이다.

#### II. 타락한 이스라엘의 혼란의 와중에 엘가나와 한나는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이 정하신 생명의 노선안에 남아 있었다.

- A. 생명의 노선은,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삼일 하나님의 유기체인 그리스도의 몸, 곧 그분의 왕국을 소유하시도록 하나님의 백성의 누림을 위해 그리스도를 산출하는 노선이다.
- B. 하나님의 구원은 주로 우리의 이익을 위한 것인 반면,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갈망을 성취하는 것과 관계된다.
1.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 여기 있는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여기에 있는지를 자문해보아야 한다.
  2. 오늘날 이땅 위의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이익만을 관심한다.
- C.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루심 아래서, 한나는 혼 안에서 억압을 당하여 그녀의 영 안에 여호와께 쏟아낼 부담이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움직임 이었다. 하나님이 그녀 안에서 움직이심으로 인해 한나는 그녀가 아들을 구하는 기도를 하기까지 평강을 가질 수 없었다.

- D. 하나님은 생명의 노선 안에서 그분과 하나였던 사람인 한나를 분발시키실 수 있었다. 그분이 그러한 사람을 얻으실 수 있는 한, 그분은 땅 위에서 길을 얻으신다
1. 우리 가운데 최소한 몇 사람이라도 오늘날의 한나가 되어, "주여, 주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주님의 마음에 뭔가를 품고 계신다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경륜을 수행하기 위해 생명의 노선 안에 남아 있습니다." 라고 말하기 바란다.
  2. 여러분이 이렇게 한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움직이고자 하실 것임을 온전히 확신한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가서서 여러분을 분발시키실 것이다. 하나님은 시대를 전환하기 위해 얼마의 사무엘들을 산출할 수 있는 많은 한나들을 필요로 하신다. -라이프 스터디 사무엘 상 메세지 2.

### III. 사무엘의 기원은 특히 하나님을 추구하는 어머니와 그녀의 기도였다(9-18절). 그녀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의 반향이었다. 그녀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수행하기 위한 신성한 움직임에 사람이 협력하는 것이었다.

- A. 우리는 형식적으로 하는 낡은 기도를 더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대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반향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때에 말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어야 함을 뜻한다.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해내는 것이다.
- B. 한나의 기도는 이와 같았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원하셨지만, 그분께는, "주여 제게는 아들이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하는 한나의 협력이 필요했다.
- C. 한나가 그 기도를 드린후에, 사람의 협력은 그분이 움직이실 수 있는 기초가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시기가 쉬웠다.
- D. 한나의 기도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이 움직이신 것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분은 움직이실때 사람의 협력을 필요로 하신다는 원칙을 지키신 것이었다. 이것은 성육신의 원칙이다.
- E. 한나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움직이신 것은 그분의 갈망을 이루는 절대적인 나실인을 산출하기 위한 것이었다. 나실인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다.
  1. 우리는 사무엘의 기원, 근원에 인상받아야 한다. 그는 그러한 강한 근원에서 나왔으므로 평범한 세상적인 사람일 수가 없었다.
  2. 오히려 그는 쇠퇴하는 제사장 직분을 대치하고 그리스도를 이끌어온 다윗을 산출한 사람이었다.
- F. 특히 자매들은 한나와 같이 되는것을 열망함으로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을 산출 하도록 기도해야 한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왕국과 함께 오시도록 혼돈된 시대를 종결지을 것이다.
  1.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를 만족시켜드리는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의 체현이시자 제물들의 실재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4-5절.
  2. 우리에게는 또한 회막의 성취 곧 하나님의 거처인 교회가 필요하다 한나는 그녀의 영향력 있는 기도를 집 안에서 드리지 않았다—9-11절.
  3.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회생활안에 있는 하나님의 체현과 그분의 완전한 구원이다. 그러한 교회생활 안에 있을때 우리는 하나님의 목표를 위해 영향력 있는 기도를 함으로써 왕국을 이끌어올 수 있다.

### IV. 한나의 사역은 왕을 이끌어 오는 것이다.

- A. 한나는 완전히 분별되어 여호와를 섬길 아들을 얻기 위하여 울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여호와께 간구 했다—삼상 1:10-11, 26-28.
- B. 이 아들이 바로 왕을 이끌어 오는 사람이었다—삼상 16:13; 대상 11:3b; cf. 마 1:1.
- C. 그러나 내가 틀리지 않다면, 지금이 마지막 날이다. 하나님의 눈길은 왕을 이끌어올 수 있는

자에게 주목되어 있다. 우리는 우리의 사역이 어떠한가 자문해야 한다. 이 특별한 사역, 즉 하나의 사역 안에 우리의 분깃이 있는가?

- D. 한나가 되고자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핍박을 받고 멸시를 받으며 울고 금식하기 위해서 자신을 예비해야 한다. 이 사역은 쉬운 것이 아니며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모든 사역은 반드시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오며 우리 안에 조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삼상 1:6-7.
- E.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의 무리를 얻기 원하는 문제이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왕국을 가져올 수 있는 한 무리를 얻기 원하신다.
- F. 하나의 기도는 사무엘의 출생의 근거이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의 결과 곧 이기는 자를 산출해야 한다 —계 2:7, 11, 17, 26-28; 3:5, 12, 20-21; 12:5; 14:3-5.
- G. 사무엘상 1장의 아들이 바로 계시록 12장의 왕과 왕국을 이끌어 오는 사내아이이다 —12:5-10.

## 사역의 발췌문:

### 사무엘 상·하 라이프-스타디에 대한 결론의 말

사무엘 상·하는 먼저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을 성취하시기 위해서는 사람의 동역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계시한다. 그 첫번째 예시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이다. 그녀는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동역하고 협력했다. 이것은 하나님께, 엘리 아래서 쇠퇴하는 제사장 직분을 그녀의 아들 사무엘을 통해 그분이 일으키신 새로운 제사장 직분으로 대치하실 수 있도록 길을 제공해드렸다.

그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과 동역하고 협력한 결과인 사무엘은 하나님을 위하는 그 어머니의 갈망에 따라 신실한 나실인이 되어 타락한 사사 시대를 끝내고, (1)낡은 제사장 직분의 다스리는 사역을 대치하는 왕권과 (2)낡은 제사장 직분의 하나님의 말하는 사역을 대치하는 선지자 직분을 가져오는 길을 하나님께 제공해드렸다. (*사무엘 하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9)

### 중심 사상

사무엘 상·하의 중심 사상은, 하나님의 경륜의 성취는 사람의 동역을 필요로 하며, 이것은 적극적인 의미에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와 사무엘과 다윗의 역사로 예시되고,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엘리와 사울의 역사로 예시된다. 그러한 동역은 만유를 포함하고 만유에 미치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좋은 땅에 대한 개인적인 누림과 관련된다. 그러므로 사무엘 상·하는 여호수아, 사사기, 룯기의 연속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좋은 땅을 누리는 것에 관한 세부 항목들을 제공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누리는 그 좋은 땅은 하나님의 왕국이 되었으며, 그 안에서 그들은 왕들로서 다스렸다. 이것은 신약의 믿는이들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의 예표로서, 그들이 영원한 생명 안에서 통치하는 것으로 귀결된다(롬 5:21).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의 성취가 우리의 동역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에 인상받아야 한다. 하나님과 동역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묶이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인삼각 경주를 그 예로 사용할 수 있다. 그 경주에서 경주자들은 각각 한쪽 다리를 그의 파트너의 한쪽 다리와 묶고서 짝을 이루어 달려야 한다. 참가자들이 달리기 위해서는 서로 동역해야 하며, 단독적으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 이것은 합당한 그리스도인 생활의 그림이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묶이는 것이며, 한 생명으로 인해 그분과 함께 한 생활을 사는 것이다. 사무엘의 출생은 한나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을 필요로 했다. 낡은 제사장 직분은 진부하고 쇠퇴해 가고 있었으며, 하나님은 또 다른 시작을 갖고자 하셨다. 사무엘의 출생을 위하여 하나님은 배후에서 일을 시작하셨다. 한편으로, 그분은 한나의 태를 담으셨고, 다른 한편으로, 그분은 격동시키는 사람을 예비하셨다(삼상 1:5-7). 이것은 한나로 하여금 주님이 그녀에게 사내아이를 주시도록 기도하게 했다. 그녀는 기도 가운데서,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라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서원하며 말했다(11절). 이 기도는 한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녀가 기꺼이

그분과 동역하고자 하였으므로, 하나님은 한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에 응답하여 그녀의 태를 여셨으며, 한나는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20절). 그 후 그녀는 서원에 따라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 엘리의 후견 아래 두었다. 이로부터 우리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과 상당히 동역한 사람이었음을 본다. 그녀의 사례는 오늘날 하나님이 어떤 유익의 사람을 얻기를 기대하시는가를 보여 준다...

오늘날 많은 대륙과 나라들이 주의 회복에 대해 열려 있다. 한나와 같이 서원할 몇몇 사람들이 필요하다. 나는 많은 젊은이들이 그러한 서원을 하기 바란다. 여러분은, 『주여,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다만 자신을 주님께 빌려드립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실 것이며, 여러분이 그분께 서원한 것을 성취하시기 위해 무언가를 이루실 것이다. (사무엘 상 라이프 스토리, 메시지 1)

### 하나님을 경배하는 부모

인간적으로 말해서, 사무엘의 기원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부모였다(1-8절).

####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이 정하신 생명의 노선 안에 남아 있음

타락한 이스라엘의 혼란의 와중에 엘가나와 한나는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이 정하신 생명의 노선 안에 남아 있었다. 생명의 노선은,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삼일 하나님의 유기체인 그리스도의 몸, 곧 그분의 왕국을 소유하시도록 하나님의 백성의 누림을 위해 그리스도를 산출하는 노선이다.

엘가나와 한나는 단지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위해 이 생명의 노선 안에 남아 있었다. 하나님의 구원은 주로 우리의 이익을 위한 것인 반면,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갈망을 성취하는 것과 관계된다.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여기 있는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여기에 있는지를 자문해보아야 한다. 오늘날 이 땅 위의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이익만을 관심한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대다수가 하나님의 목적을 돌보지 않는다. 내가 워치만 니 형제님에 대해 증거할 수 있는 것은,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나는 그의 본을 따르고 싶다. 주님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동역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한 표현을 가질 수 있도록, 삼일 하나님의 유기체인 몸을 얻는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생명의 노선 안에 남아 있다.

####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기 위한 땅 위에서 하나님의 움직이심에 협력함

이 부부는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기 위한 땅 위에서 하나님의 움직이심에 협력하고 있었다. 엘가나와 한나는 단독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배후에서 은밀하게 움직이고 계시는, 유일하고 신성한 발동기이신 움직이시는 그분에 의해 움직였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루심 아래서, 한나는 혼 안에서 억압을 당하여 그녀의 영 안에 여호와께 쏟아낼 부담이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움직이심이었다. 하나님이 그녀 안에서 움직이심으로 인해 한나는 그녀가 구하는 기도를 하기까지 평강을 가질 수 없었다. 주권적인 하나님은 그녀를 계속 움직이고 자극하셔서, 비록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를 돌보는 사람인 엘리가 그녀를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녀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하셨다. 한나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움직이심과 동역했다.

하나님은 생명의 노선 안에서 그분과 하나였던 사람인 한나를 분발시키실 수 있었다. 그분이 그러한 사람을 얻으실 수 있는 한, 그분은 땅 위에서 길을 얻으신다. 나는 우리 가운데 최소한 몇 사람이라도 오늘날의 한나가 되어, 『주여, 주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주님의 마음에 뭔가를 품고 계신다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경륜을 수행하기 위해 생명의 노선 안에 남아 있습니다.』라고 말하기 바란다. 여러분이 이렇게 한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움직이고자 하실 것임을 온전히 확신한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가서서 여러분을 분발시키실 것이다. 하나님은 시대를 전환하기 위해 얼마의 사무엘들을 산출할 수 있는 많은 한나들을 필요로 하신다.

### 특히 하나님을 추구하는 어머니와 그녀의 기도

사무엘의 기원은 특히 하나님을 추구하는 어머니와 그녀의 기도였다(9-18절). 그녀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의 반향이었다. 그녀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수행하기 위한 신성한 움직이심에 사람이 협력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형식적으로 하는 낡은 기도를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대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반항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말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어야 함을 뜻한다.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해내는 것이다. 한나의 기도는 이와 같았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원하셨지만, 그분께서는, 『주여, 제게는 아들이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하는 한나의 협력이 필요했다. 이러한 기도는 매우 인간적이었지만, 하나님의 경륜을 위한 신성한 움직이심과 협력하는 것이었다.

### **움직이시는 하나님과 사무엘의 어머니의 기도에 대한 그분의 응답**

*하나님의 선민 가운데서의 그분의 움직이심을 위한 하나님의 갈망과 뜻을 따라*

매우 특별하게, 사무엘의 기원은 사무엘의 어머니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였다(19-20절). 한나가 그 기도를 드린 후에, 사람의 협력은 그분이 움직이실 수 있는 기초가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시기가 쉬웠다. 움직이시는 하나님은 그분의 갈망과 뜻에 따라 선민 가운데서의 움직이심을 위해 사무엘의 어머니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하나님은 사람의 협력을 필요로 하신다는 원칙을 지키므로*

한나의 기도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이 움직이신 것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분은 움직이실 때 사람의 협력을 필요로 하신다는 원칙을 지키신 것이었다. 이것은 성육신의 원칙이다.

*그분의 갈망을 이루는 절대적인 나실인을 산출하기 위해*

한나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움직이신 것은 그분의 갈망을 이루는 절대적인 나실인을 산출하기 위한 것이었다. 나실인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다. 나실인은 결코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포도주를 마실 수 없었다. 성경에서 긴 머리는 머리 됨, 권위를 상징한다. 나실인이 그의 머리카락을 길게 두는 것은, 마치 여자가 그 남편을 머리로 취하듯이, 그가 하나님을 머리 삼고 하나님을 남편으로 여긴다는 표시이다. 이와같이, 나실인은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키고, 하나님을 권위인 머리로 취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이유로, 한나는 만일 주님이 그녀에게 사내아이를 주신다면, 결코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고 기도했다(11절). 성경에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다. 나실인은 권위이신 하나님께 복종할 뿐 아니라, 또한 세상 즐거움을 누리는 데 전혀 흥미가 없어야 한다. 사무엘은 태어나기도 전에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그의 어머니에 의해 헌신되었다. 이것은 엄청난 일이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왔기 때문이다.

신약 시대는 또 다른 나실인—침례자 요한—이 이끌어왔다. 베드로와 바울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님도 나실인이셨다. 사실, 생명의 노선에 남아 있는 모든 사람이 나실인이다. 오늘날의 나실인이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머리와 남편으로 취하여 그분께 복종해야 하며, 세상 즐거움에 아무런 흥미가 없어야 한다.

우리는 사무엘의 기원, 근원에 인상받아야 한다. 그는 그러한 강한 근원에서 나왔으므로 평범한 세상적인 사람일 수가 없었다. 오히려, 그는 쇠퇴하는 제사장 직분을 대치하고 그리스도를 이끌어온 다윗을 산출한 사람이었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부양함*

사무엘 2장 19절은 어머니가 사무엘을 부양했다고 말한다. 오늘날 주의 회복 안에서 우리에게도 부양이 필요하며, 우리는 교회 생활 안에 있는 많은 어머니들로 인해 주님께 감사한다. (사무엘 상 라이프 스테디, 메시지 2)

### **사무엘의 사례를 우리의 현 상황에 적용함**

우리가 처한 현 상황과 오늘날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무엘의 때와 동일하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은 나실인이자 제사장이고 신언자이자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과 같은 이들을 필요로 하신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였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심으로써, 왕도 없고 왕국도 없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종결 시키셨기 때문이다. 하나님 부정적인 상황을 종결시키고 왕과 왕국을 가져오게 할 자격을 갖춘

그러한 사람들을 필요로 하신다. 왕국의 성취는 주 예수님께서 가져오실 오는 왕국이 되겠지만, 오늘날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이 그 왕국을 가져오는데에 협력할 필요가 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는 지금 이곳에 계시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사사시대와 꼭 마찬가지로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있다. 우리는 마지막 사사가 되기를 열망해야 한다. 특히 자매들은 한나와 같이 되는 것을 열망함으로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을 산출 하도록 기도해야 한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왕국과 함께 오시도록 혼돈된 시대를 종결시킬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일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신성한 삼일성이 얼마나 크게 필요한지를 깨달아야 한다. 한나가 그러한 영향력이 있는 기도를 드리고 분명한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성막과 제물들이 필요했다. 성막과 제물들은 하나님의 체현과 모든 제물의 실재이신 아들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를 만족시켜드리는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의 체현이시자 제물들의 실재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또한 회막의 성취 곧 하나님의 거처인 교회가 필요하다 한나는 그녀의 영향력 있는 기도를 집 안에서 드리지 않았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회생활안에 있는 하나님의 체현과 그분의 완전한 구원이다. 그러한 교회생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목표를 위해 영향력 있는 기도를 함으로써 왕국을 이끌어올 수 있다. 이것이 신성한 삼일성을 체험하는 것이다. (위트니스리 전집 1983년 3권, “거룩한 말씀에 계시된 신성한 삼일성” 10과)

### 한나의 사역

한나는 완전히 분별되어 여호와를 섬길 아들을 얻기 위하여 울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여호와께 간구했다. 이 아들이 바로 왕을 이끌어 오는 사람이었다. 한나는 교만할 것이 없었지만 브닌나는 자랑 할 것이 많았다. 그녀는 모든 자녀들을 두고, “나는 이것도 있으며 저것도 있으며 모든 것이 있다...”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깊은 속에서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한 마디가 있다. 만약 여러분이 여전히 사사의 범주 안에 있다면 축복을 얻고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것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내가 또 당신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눈길이 그러한 당신에게 있지 않다는 것이다. 만약 오늘이 마지막 날이 아니라면, 브닌나가 더욱 많은 자녀를 낳기 바란다. 그러나 내가 틀리지 않다면, 지금이 마지막 날이다. 하나님의 눈길은 왕을 이끌어올 수 있는 자에게 주목되어 있다. 우리는 우리의 사역이 어떠한가 자문해야 한다. 이 특별한 사역, 즉 한나의 사역 안에 우리의 분깃이 있는가? 어떤 사람이 바라는 것은 바로 부흥이다. 그들은 사사의 원칙이 마지막까지 지속된다고 여기지만 사실상 더욱 중요한 사역은, 바로 왕을 가져오는 사역이다.

우리는 한나의 길이 쉬운 길이 아니며 브닌나의 비교함과 조소로 인하여 더욱 어렵다는 것을 본다. 한나가 되고자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핍박을 받고 멸시를 받으며 울고 금식하기 위해서 자신을 예비해야 한다. 이 사역은 쉬운 것이 아니며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모든 사역은 반드시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오며 우리 안에 조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은 자기의 자녀를 보면서 먹고 마실 수 있지만, 여기에 이 사람은 금식하며 울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는 자의 무리를 얻기 원하는 문제이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왕국을 가져올 수 있는 한 무리를 얻기 원하신다.

한나의 기도는 사무엘의 출생의 근거이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의 결과 곧 이기는 자를 산출해야 한다. 우리는 이 방면에 무엇을 했는가? 어떤 사람은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자녀를 낳아서, “나는 너희들이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다. 과거에 너희들은 부흥회를 인도하고 이것을 하고 저것을 했었다. 그러나 지금 너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말할 것이다. 심지어 하나님의 제사장 엘리도 한나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그녀에게 무엇을 하느냐고 물었으며 그녀가 술에 취한 줄로 생각 했다.

사무엘의 출생에서 우리는 선지자의 노선을 본다. 이 선지자들은 또한 제사장이 될 수 있으며 왕을 이끌어 온다. 한나는 선지자인 아들을 낳았다. 하나님은 한나에게 많은 일을 하셨다. 그분은 과거에 그녀를 인도하여 많은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셨다. 지금 하나님은 먹고 마시는 것과 모든 일을 한 곳에 제쳐놓을 수 있는 자를 찾으셨다. 그녀는 만약 아들이 없으면 전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그녀는 반드시 아들을 얻어야 했다. 사무엘상 1장의 아들이 바로 계시록 12장의 왕과 왕국을 이끌어 오는 사내아이이다. (위치만니 전집 46권 172과)

## 연구 문제:

1. 한나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기위해 그분께 협력 하고 동역했습니까? 한나의 사례에서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것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2. 생명의 노선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한나와 같이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기 위해 생명의 노선에 남아 있을수 있습니까?
3. 어떻게 자매님들이 오늘날의 한나로서 하나님의 필요를 충족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오는 영향력있는 기도를 할수 있습니까?

## 참고 및 추가로 읽을 말씀:

1. 사무엘 상 라이프 스테디, 메시지 2, 사무엘 하 라이프 스테디, 메시지 19.
2. 위트니스리 전집 1983년 3권, "거룩한 말씀에 계시된 신성한 삼일성" 10과.
3. 워치만니 전집 46권 172과.

## 성경말씀: 사무엘 상 1:1-2:11

- 1:1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소빔 출신의 한 남자가 있었는데, 이름은 엘가나였다.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슽의 현손으로 에브랏 사람이었다.
- 1:2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아내의 이름은 한나였고 다른 아내의 이름은 브닌나였다. 그런데 브닌나에게는 자녀가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 1:3 그 사람은 해마다 자기가 살던 성에서 실로에 올라가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고 희생 제물을 바쳤다. 거기에는 엘리의 두 아들인 홉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와 제사장으로서 있었다.
- 1:4 제물을 바치는 날이면, 엘가나는 아내 브닌나와 그녀의 모든 아들들과 딸들에게 제물의 몫을 나누어 주었다.
- 1:5 그러나 한나에게는 두 배의 몫을 주었는데, 왜냐하면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여호와와 한나의 태를 달아 놓으셨다.
- 1:6 여호와께서 한나의 태를 달아 놓으셨으므로, 한나의 경쟁 상대 브닌나는 그녀를 몹시 화나게 하며 괴롭혔다.
- 1:7 이런 일이 해마다 일어났다. 한나가 여호와와 집에 올라갈 때마다 브닌나가 이런식으로 그녀를 화나게 했으므로 한나는 먹지도 않고 울기만 하였다.
- 1:8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그녀에게 말하였다. "한나, 왜 이렇게 먹지도 않고 울고만 있소? 왜 이렇게 당신의 마음이 슬픈거요? 내가 당신에게 열 아들 보다 더 낫지 않소?"
- 1:9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 한나가 일어났다.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와 성전 문설주 옆에 있는 자기 자리에 앉아 있었다.
- 1:10 한나는 혼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며 많이 울었다.
- 1:11 한나가 서원하며 말하였다. "오, 만군의 여호와님! 만일 여호와께서 참으로 이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저를 기억하시어 이 여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여종에게 사내아이를 주신다면, 그 아이의 일생을 여호와께 바치며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 1:12 한나가 여호와 앞에서 오래 기도를 지속하는 동안 엘리는 한나의 입을 주시하였다.
- 1:13 한나는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었으므로, 입술만 움직일 뿐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했다고 생각하였다.
- 1:14 엘리가 한나에게 말하였다. "언제까지 취해 있을 것입니까? 포도주를 그만 끊으십시오."
- 1:15 그러자 한나가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나의 주인님. 나는영이 짓눌린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다만 여호와 앞에 내 혼을 쏟아 내고 있었을 따름입니다.
- 1:16 그러니 어르신의 여종을 형편없는 여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무 괴롭고 화가 나 이제껏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 1:17 그러자 엘리가 대답하였다. "평안히 가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대가 그분께 간구한 그 간구를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 1:18 한나가 말하였다. " 이 종이 어르신 앞에서 은총을 입기 바랍니다. 그러고는 그 길로 가서 음식을 먹었다. 한나의 얼굴에는 더이상 슬픈 기색이 없었다.
- 1:19 엘가나와 그의 가족은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나서,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다. 엘가나가 한나와 동침하였는데, 여호와께서 한나를 기억하셨다.
- 1:20 때가 되자 한나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서,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라고 하며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였다
- 1:21 그사람 곧 엘가나가 온 가족과 함께 여호와께 매년 바치는 제물과 서원 제물을 드리려고 실로에 올라가는데,
- 1:22 한나는 남편에게 "아이가 젖을 떼면 그때 아이를 데리고 올라가 여호와께 보이고 그곳에 영원히 머물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올라가지 않았다.
- 1:23 그러자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말하였다. "당신이 보기에 좋을 대로 하구려, 아이가 젖을 떼 때까지 머물러도 좋소. 다만 여호와께서 그분의 말씀을 확증하시기를 바랄 뿐이오." 그래서 한나는 아이가 젖을 떼 때까지 집에 머물며 아들을 양육하였다.
- 1:24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그들 데리고 올라갔다. 황소 세 마리에게다 고운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도 함께 가지고 갔다. 비록 아이가 어렸지만 한나는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으로 아이를 데리고 갔다.
- 1:25 그들은 황소를 잡은 다음 아이를 엘리에게 데리고 갔다.
- 1:26 한나가 말하였다. "오, 나의 주인님, 어르신의 혼이 살아 계신 것을 두고 말씀드립니다. 나는 어르신 옆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드렸던 그 여자입니다.
- 1:27 내가 기도한 것은 바로 이 아이 때문이었는데, 내가 여호와께 간구한 그 간구를 그분께서 들어주셨습니다.
- 1:28 그래서 나도 이 아이를 여호와께 빌려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이 아이는 일생 동안 여호와께 빌려드린 아이입니다." 그아이는 그곳에서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 2:1 한나가 기도하며 말하였다. "저의 마음은 여호와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저의 뿔은 여호와 안에서 높여지며 여호와의 구원을 기뻐하는 까닭에 저의 입은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립니다.
- 2:2 여호와처럼 거룩한 이 없으니 여호와 외에는 아무도 없으며 저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습니다.
- 2:3 너희는 더 이상 것처럼 교만하게 말하지 말고 거만한 말을 입에서 내뱉지 마라.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며 너희 행동들을 친히 저울에 달아 보시는 분이시다.
- 2:4 용사들의 활이 부러지고 넘어진 이들이 힘으로 띠 둘러진다.
- 2:5 배부르던 이들이 양식 얻고자 품을 팔고 굶주리던 이들이 더 이상 굶주리지 않는다.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가 일곱을 낳고 아이 많던 여자가 기력을 잃는다.
- 2:6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로 내려가게도 하시고 거기서 올라오게도 하신다.
- 2:7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또한 높이기도 하신다.
- 2:8 가난한 이들을 먼지에서 일으키시고 잿더미에서는 빈곤한 이들을 일으키시어 통치자들과 함께 앉히시고 영광의 보좌를 물려받게 하신다. 땅의 기둥들이 여호와의 것이고 그분께서 그 위에 세상을 두신 까닭이다.
- 2:9 그분께 신실한 이들의 발은 그분께서 지켜 주시나 악인들은 어둠 속에서 잠잠하게 되리니 어떤 사람도 힘으로 이기지 못하리라.
- 2:10 여호와와 다투는 이들은 산산조각 나리니 그분께서 그들을 향해 하늘에서 천둥이 치게 하시리라. 여호와는 땅의 끝들을 심판하시며 그분의 왕에게 힘을 주시고 그분의 기름부음 받은 이의 뿔을 높이시리라."
- 2:11 엘가나는 라마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